

엘레인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5 강 , 갈릴리

역사 지리학 개론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엘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 이번 강의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안 평야 지역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대해 꽤 많이 다루었으니,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여 예수님과 갈릴리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 하지만 먼저 , 늘 그렇듯이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와 히브리 호수 사이에 있는 땅인데 , 우리는 이미 이곳이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을 알아챘으니,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항상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은 강수량, 토지 생산성 등과 같은 풍요로운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땅은 위협과 위험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것에 대한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악 지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타원형으로 표시된 야생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해안 평야 지역에서 온 외래 문화의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나사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나사렛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카르멜 산 지역에서 이즈레엘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분이 일하셨던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이 중요한 움직임인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던 몇몇 지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훨씬 더 큰 사역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구약성경에서 갈릴리는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이 구절은 마태 복음 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 이사야서 8장은 암흑과 짙은 어둠 등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 그런데 9장의 첫 단어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이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낮추셨지만, 미래에는 바닷가 길 , 요단 강변에 있는 이방인의 갈릴리 땅을 높이실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칭호를 가진 아기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이르러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최소 2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후, 먼저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남왕국도 포로가 되었으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갈릴리를 포함한 북왕국에는 이방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혼합과 문화 융합에 대해 자세히 보여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을 거쳐 이집트까지 진출하게 되고 , 그 결과 이 지역은 그리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헬레니즘은 단순히 그리스 문화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접목시켜 새롭고 독특한 것을 발전시켰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의 장군들이 왕국 분할을 놓고 서로 싸우면서 ' 중간 지대' 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차지했는데,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중간 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투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3세기 말,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 중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레우코스 왕이 등장하여 헬레니즘 문화, 특히 그 철학적·종교적 함의를 유대인들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강요하려 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이후 세 펠라의 작은 마을 모디인 에서 유대인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받자, 마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봉기하여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킵니다 .

유다 마카베오는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갈릴리에서 중요한 점은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의 후손들이 독립 국가를 세워 약 100년 동안 그 국가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의 작은 영토에서 시작하여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갈릴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황제 시대에 강제로 독립 유대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온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104년부터 103년까지 갈릴리는 다양한 인종과 이방 종교, 그리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이방 민족들이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꾸준히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기원전 63년부터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세포리스 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는 다른 이방 종교, 헬레니즘, 로마의 영향이 뒤섞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받을 들여놓아 중요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먼저 하부 갈릴리 를 살펴보겠습니다 .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뉩니다. 상부 갈릴리는 험준하고 고립된 지역이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에서 특별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부 갈릴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서쪽 부분과 동쪽 부분이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중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 그곳에 지중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곧 명확해질 것입니다.

앗, 이즈레엘 계곡을 지워버렸네요. 뭐, 일단은 그대로 두죠. 지형이 표시된 이 지도에서 하부 갈릴리를 보시면 계곡들이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산등성이들도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며, 우리는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이 지역이 외국의 영향에 취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세펠라 계곡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산악 지대로 진출하는 작은 통로였던 것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이 계곡들은 지중해, 아코, 프톨레마이오스 등 그 주변 도시들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교통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세포리스 라는 곳에 갈릴리의 수도를 세울 예정인데 ,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날씨 패턴이 신기하게 느껴지시죠?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중해 지역은 일반적으로 습하고 짙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은 항상 습기를 머금은 구름을 동쪽, 즉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넣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앞선 강의에서 지중해와 지중해 사이의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깔때기 모양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지역 남쪽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구릉지대를 넘어 서쪽 경사면에 비를 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깔때기 효과가 발생하여 폭풍우 구름이 이 틈새를 통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몰려듭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는 해발 고도가 비교적 낮 습니다 .

해발 700피트(약 213미터) 아래에 있는 곳이죠. 습하고, 축축하고, 따뜻해요. 생각해 보세요 , 그런 환경이 얼마나 심한 난류를 만들어낼지 짐작이 가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헤쳐나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상학적 관점에서 폭풍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깔때기 모양의 통로를 통해 이 지역으로 공기를 몰고 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남쪽에는 화살촉 모양을 닮은 이즈레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즈르엘 골짜기를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즈르엘 골짜기는 역사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넓고 평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살촉이 여기 있고 화살대가 저기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곳이 전쟁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즈르엘 골짜기 북쪽에는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 동서로 뻗어 있는 여러 능선의 뒷면인데, 나사렛이 이 능선 뒷면의 약간 움푹 들어간 곳, 즉 석회암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사렛 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렛 능선은 이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주변 환경에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 그의 눈앞에는 구약 성경 역사의 모든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이즈르엘 골짜기를 내려다볼 때, 그곳에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북쪽과 서쪽에는 갈릴리 지방의 로마 수도였던 세포리스가 있습니다 .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로마 도시였으니까요.

이곳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건설했는데, 예수의 아버지가 건설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적어도 매우 유력한 가능성입니다.

세포리스 까지는 약 3.5마일 정도 됩니다 .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당신은 그곳에 살 수도 있었고, 세포리스 에서 일하다 가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니다. 예수님은 세포리스 의 건축 활동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꽤 잘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큼니다 .

그곳에 지어진 건물 중 하나가 극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음서에서 배울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17번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도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는 세포리스 의 극장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 어쨌든 나사렛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작고, 이곳의 작은 산등성이에 고립되어 있지만 세포리스 와 가깝고 , 구약 성경 역사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과도 가깝습니다. 추가로 두 곳을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기 다블 산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모리아 산도 있는데, 이 산 역시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셨을 풍경 중 일부입니다. 이 지도에 붉은 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블레셋 평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국제 해안 항로입니다. 이 항로는 갈멜 산을 지나고, 이즈르엘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다블 산을 지나 가버나움 지역으로 내려간 다음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서부 갈릴리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나사렛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 중 하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을 긍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아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엘리야가 북쪽 페니키아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를 붙잡아 언덕 꼭대기로 끌고 가서 언덕 아래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림을 통해 그 장면을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사렛 능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록색 포인터가 가리키는 바로 이 지점에 가드 헤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헤퍼가 복음서 어디에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요나가 가드 헤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주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예언자의 목소리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삼일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요나 이야기와 비교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 만한 예언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는 바로 근처 출신의 지역 예언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펼쳐질 수 있는 구약 역사 이야기 중에는 바로 이곳 수넴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면 끝에 호렙산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겹옷을 입히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진정으로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겹으로 떠나는 순간 나를 다시 보는 사람은 두 배의 몫을 상속받을 것이다."

엘리사는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7, 8세기 후에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다시 수넴 이야기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여행 중에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 그가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얼마 후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는 수넴에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즈레엘 골짜기를 지나 카르멜 산으로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수넴입니다. 카르멜 산은 엘리사가 그 시점에 있었던 곳입니다.

엘리사는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했지만, 게하지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따라갔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론은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근처, 모레산 주변, 여기 수넴과 나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인 마을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소년의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예수께서 다가가 시신과 관을 만지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여기서 연결하고 싶은 점은, 그곳 사람들이 감격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도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

자, 그럼 갈릴리 가나를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꽤 잘 알고 있죠 . 나사렛에서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가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간청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그 가족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작은 결혼식 하객들이 예상치 못한 많은 하객들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는 13명의 추가 인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계기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기서 세포리스 와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세포리스 와 매우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며 자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예를 들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석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이 이야기들을 지도적인 관점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즈르엘 골짜기, 정확히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서 저 위 나사렛 능선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사렛은 저기 저쪽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가 나서 그를 언덕 꼭대기로 끌고 가는 장면을 떠올리며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겠습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면 꽤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저건 저기로 밀려 내려간 낡은 차의 잔해예요. 이걸 보면 이 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마도 이곳을 여러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생긴 이름일 텐데, 바로 '강수산'입니다. 여기서 '강수산'은 비가 내리는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지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을 떠올려보면 , 신약성경 이후 수 세기 동안 활동했던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키의 두 배 이상 되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던져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을 이곳으로 데려간 유대 전통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잠깐 언급해 볼 만한 연결점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타볼 산입니다 .

여기가 바로 그 산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사사 드보라는 장군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볼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즈르엘 골짜기로 내려와 하솔 왕 야빈의 장군 시세라의 군대와 맞붙게 됩니다. 이처럼 이즈르엘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잠깐 둘러보면, 이쪽에 다볼 산이 있고, 바로 이쪽에 모레 산 지역이 있으며, 나사렛 능선에서 있으면 나인이 바로 저 모퉁이에 있습니다. 또한 세포리스 유적도 잠깐 살펴볼까요 ? 세포리스는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고, 1980년대에 발굴되어 놀라운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극장 좌석인데, 실제로 암반을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일부 극장은 구조화되어 있었고, 아래쪽에 아치형 천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 좌석들은 암반을 그대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

이곳은 1세기 극장이 있던 자리이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던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리스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면, 방금 랍비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 후 활동 중심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옮겼으며, 세포리스는 주요 유대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4세기, 이 후기 랍비 시대에는 발굴된 주목할 만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곳에서 아름다운 유대교 회당 바닥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이 모자이크 바닥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패널에는 발견자들이 붙인 이름이 있는데, 모자이크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작은 메달리온 부분을 '갈릴리의 모나리자' 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실, 이건 디오니소스 축제를 기념하는 훨씬 더 큰 패널의 일부예요.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이곳은 랍비 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로마인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거든요.

유대인 랍비들과 로마 통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제국이 기독교화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원만 하게 지냈습니다. 대체로 좋은 교류가 있었고, 그 결과 세포리스 에서는 그리스-로마 양식의 주제들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포리스 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동서로 뻗은 계곡 중 하나를 건너 바로 이곳에 카나 유적이 보입니다. 발굴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기 비잔틴 시대의 유물들이 일부 발견되었지만, 이곳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동하여 주변 유적지를 먼저 살펴보고,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정보와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시간은 없으므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다의 길'이라는 구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곳은 호수입니다.

여기 정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길이는 약 13마일, 폭은 7.5마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실제 크기는 그보다 작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중해를 비롯한 큰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서부의 우가리트 문화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력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악령을 쫓아내시고, 질병과 간질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과도 소통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그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몇 군데 더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큰 평야 지대, 즉 충적토가 흘러들어온 지역인데, 이곳은 매우 비옥합니다.

바로 여기 게네사렛 평야와 북쪽과 동쪽에 있는 벳새다 평야가 있습니다. 이 두 평야는 그 위에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도 중요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마도 이 지역의 주요 거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짧은 기간 사목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고, 그곳이 예수님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 위쪽 능선에 코라진이라는 마을이 있고, 벳새다도 있습니다. 벳새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데, 어쩌면 두 개의 마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마을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마을 주민들을 향해 하신 따끔한 질책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것들이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모여 있는 걸 보세요. 코라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 너희에게서 행해진 기적들을 믿으라.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그 도시들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기적에 대한 묘사는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거듭 행해 왔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

어쨌든, 만일 너희에게서 행해진 기적들이 두로 와 시돈, 곧 북쪽과 서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방, 예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 언급하셨던 그 도시들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 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예수의 고향인 가버나움, 그를 알던 사람들, 곧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그를 내쫓고 거부했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높이 들려 올라가 겠느냐? 아니다. 너는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만일 너에게서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모욕이었겠느냐.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소돔과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극악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부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소돔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과 매우 가까운 이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쳐 갑자기 큰 폭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게다가 북쪽과 동쪽에서 흘러드는 요르단 강이 있는데, 요르단 강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 어쨌든 이 강은 헤르몬 산의 강수량으로 형성된 담수를 운반해 옵니다. 동시에 이 지역 전체는 지구대(Rift Valley)의 일부이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동쪽 해안에는 염천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이곳은 물고기의 훌륭한 번식지가 되었고, 따라서 북서쪽 가장자리 와 남동쪽 해안에서 낚시가 특히 잘 됩니다.

흥미롭게 도 ,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스라엘의 물 공급 측면에서 좋지 않지만, 그로 인해 얻은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세기 이 지역에 관심 있는 고고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갈릴리 호수 해안선을 따라 조사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최소 30개의 작은 항구 지역입니다.

그 주변 지역은 온통 현무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갈고리 모양의 작은 항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사레아에서 봤던 항구를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 방파제가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꺾이는 형태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이런 작고 아담한 1세기 항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 이는 그곳에서 어업이 중요한 산업 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또한 1986년 진흙 속에 박혀 있던 1세기경 배의 잔해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복원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게네사렛 평원과 벳새다 평원이 농산물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하겠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올리브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기름, 조명, 약품, 음식, 가축 사료, 연료 등 거의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 올리브 작물 생산과 올리브유 생산은 매우 중요했으며, 이는 잠시 후 살펴볼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살펴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 살아남은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갈릴리 지역을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 많은 수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단 강을 건너 더 남쪽에 있는 페레아도 얻었지만, 결국 갈릴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 필립은 갈릴리 바다 북쪽과 동쪽 지역을 얻었고, 그래서 요단 강을 경계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경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 징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곳으로 이동하셨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는 어업, 올리브유 생산, 세금 징수가 활발한 가버나움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국경 지역과 매우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리신 제자 중 한 명이 세리였던 마태오 또는 레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 근처에는 상업, 여행, 세금 징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도로, 즉 국제 해안 고속도로는 더 이상 해안 도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제 도로이며, 이

도로 또한 이곳 바로 근처를 지나갑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 도로는 내륙으로 휘어져 이스라엘 계곡을 가로지르고, 다볼 산을 지나 갈릴리 호수를 거쳐 북쪽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사역의 거점을 나사렛에서 옮기셨는데, 이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분명히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처를 마련하셨고, 요한복음 2장 12 절은 그분이 가족도 그곳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파의 땅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지리적 특징, 즉 세금, 올리브, 어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역사적 문제들과도 연결되는 몇 가지 사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 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 인용된 대로,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물론 이 말씀을 듣거나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 잘 알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군화를 짓밟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 후, "우리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도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도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름들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이름 중 하나는 평화의 왕입니다. 놀라운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 잠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 수십 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기 전, 아르벨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카퍼나움이고, 나사렛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여기가 아르벨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국제 도로, 여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도로는 바로 저기 고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는 해발고도 위에 있고, 저기는 해발고도 아래에 있어서 모든 차량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헤롯이 기원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쉽게 왕위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위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아르벨에서 매우 끔찍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필 아르벨이었냐고요? 글썄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그가 그곳을 장악해야 했기 때문 입니다. 그곳은 이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동맥과 같은 곳입니다.

헤롯은 그곳을 장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유대인 반란군들이 그의 군대에 의해 끊임없이 압박받고 있었다. 그들은 아르벨 절벽의 여러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요세푸스는 헤롯이 병사들을 발판에 태워 절벽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동굴에 숨어 있던 유대인 저항군을 학살했다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그림에는 수많은 유혈 사태와 끔찍한 참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벨 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수 시대 이후인 서기 66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인들이 이곳을 지나갔을 때도 아르벨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갈릴리 바다의 물이 그곳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지만,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절벽이 보이시죠 ? 여기가 오프사이드입니다. 여기가 우리 패스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 사방에 동굴이 있고, 저쪽에도 동굴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위치예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의 해당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이사야서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놀라운 조언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을 사람들 에게 그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요? 이 그림에는 바로 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 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바다 서쪽과 북쪽 지역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어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곳의 산업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물이 면으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에게 덜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업은 고된 노동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은 밤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지만, 그 후에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1986년에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긴나사르라는 키부츠에 사는 두 형제가 로마 동전을 찾으러 나갔다가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는 복원 작업을 위해 약 15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배의 모형입니다. 실물 사진은 없는데, 모형으로는 실물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속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재건된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길이가 무려 30미터나 되는 구조물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 있던 나무에 대한 모든 검사를 통해 이 배가 1세기경의 배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호수 서쪽, 아르벨 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막달라라는 곳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를 통해 당시 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돛대가 있고, 돛은 위쪽에서 묶여 있으며, 돛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끈과 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배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르벨 산 정상입니다.

자, 여기 절벽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세푸스의 섬뜩한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했던 기네사렛 평원입니다.

바로 이쪽이 카파르나움이고, 기네사렛은 저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세요. 요세푸스는 기네사렛 평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특성과 아름다움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실제로 이곳의 농부들은 모든 종류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호두나무, 야자수, 무화과나무, 올리브, 다양한 과일, 그리고 포도까지.

요세푸스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비옥함을 증언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카페르나움과의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페르나움 발굴 과정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규모는 당시 카페르나움이라는 작은 정착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카페르나움의 올리브 압착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 게네사렛 평원과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올리브가 카페르나움으로 운반되어 가공된 후, 해안 도로와 가까웠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출하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올리브 압착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올리브를 가져다가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 넣습니다. 금속 막대, 아니, 죄송합니다, 나무 막대가 그 부분을 관통 해서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맷돌이고, 동물이나 사람이 막대를 이용해 맷돌을 돌려 올리브를 으깨는 겁니다. 으깬 올리브를 꺼내서 자루에 넣고, 이 압착기에 넣은 다음 무게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눌리면서 올리브유가 이 작은 고리 모양으로 흘러나와 아래쪽 용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고, 여기 또 다른 맷돌이 보이는데, 이런 맷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올리브 압착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걸까요? 음, 이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 혹은 가르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맷돌이라는 개념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는 바로 저기에 가르침을 주는 도구를 가지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림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맷돌의 무게를 알았을 테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맷돌을 돌리며 물건을 부수는 일에 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셨고, 가르침을 줄 도구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며, 바다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심연과 그곳에 존재하는 영적인 결핍의 공포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신 기적, 즉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이 하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회당은 흰색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 건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이 지역은 원래 기반암이 현무암, 즉 어두운 색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이 흰색이라는 것은 분명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중에 이 회당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 바로 아래, 이쪽에는 이전 회당의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지어진 회당인데,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자재입니다.

이곳에는 아마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초기 회당의 기초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당 안으로 들어와 바로 이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회당의 기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당은 후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회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집터의 기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 구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큰 집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집이 아주 작았고, 증축은 가능했죠. 여기 방들이 있는데, 아주 작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방과 저 방 사이에는 벽이 있고요.

계속 확장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방과 저 방 사이에 또 다른 벽이 생겼네요. 참, 저기가 우리 회당이에요.

인술라 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가족이 생기면, 아이가 많을수록 집을 증축했죠.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데려오면 또 집을 확장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은 더욱 확장된 형태의 주택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주택들은 대가족을 위한 주택이며, 서로 연결된 단위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단층집에서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게 되면 그 위에 2층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지었습니다. 수평으로 확장되었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몇 세기 이후의 작은 유대인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집들(insulae) 중에는 방이 15개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언급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규모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가 올 때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들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곤경에 처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뒤쫓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티로 와 시돈으로 가실 것이며, 데카폴리스의 몇몇 도시들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히포스도 그중 하나고, 가다라도 또 다른 하나죠. 데카폴리스 도시들이 이곳곳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물러나시려고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보시다시피 저기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 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여러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곳에서 매우 극적인 일을 행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서 변모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지리적인 연관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 계곡 남쪽과 서쪽으로 펼쳐진 헤르몬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솔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 홀라 계곡에 있는 헤르몬 산은 해발 9,000피트(약 2,740미터) 높이 에 있습니다 .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허먼 산이 있는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단단한 석회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먼 산 기슭에는 샘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댄 샘입니다. 이곳은 댄 샘의 발원지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또 다른 유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비록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소이지만 몇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초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 단에는 중동 전체에서 가장 큰 카르스트 샘, 즉 석회암 지대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당 약 5,000갤런의 물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죠.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했을 때 단에 정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환경 도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들을 가져와 예배 장소를 세웠습니다. 후에 여로보암이 왕국을 분할했을 때, 그는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예배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 시대 내내 거짓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이사라 필리피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1세기경에는 이곳을 통해 물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지진 활동과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변화로 인해 지금은 물이 더 아래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거대한 구멍을 통해 물이 나왔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기초석이 보입니다. 이곳은 엄청나게 큰 사원이었을 겁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필립은 이 성전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필립은 "어딘가에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필립비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온갖 그리스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판, 제우스, 네메시스. 꽤 유명한 이름들이네요. 판은 풍요를 상징하는 염소 신입니다.

제우스는 최고신과 같은 신입니다. 네메시스는 죽음의 신이죠. 이 암벽에 있는 이 모든 감실들은 이 조각상들이 보내졌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거짓 숭배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 신전까지 있었죠. 헤롯 필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이곳은 이교도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단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리스식 대응책 같은 곳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혹은 동화된 모습으로 남은 그들이 이곳에서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 즉 그리스-로마 시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맥락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우리가 기다려 온 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오래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시리아 신들의 신전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 즉 카이사르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의 하얀 대리석 건축물들이 주변 풍경을 압도하는 곳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의 기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웅장하고 경이롭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랑하는 화려함과 영광을 배경으로 자신을 내세우시며, 자신도 그들과 비교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저 돌담의 움푹 들어간 곳에 모셔진 돌로 만든 신상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도 그와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그곳의 배경, 거대하고 험준한 절벽을 묘사하는데 사용될 법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리스어 전치사를 “이 반석을 대적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어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신다면, 예수께서는 자신과 교회, 그리고 그곳에 만연한 이교도 숭배와의 대립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움직일 것이다. 좀 더 읽어보자. 지옥의 문도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신들을 상징하는 그 바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랍비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 즉 유대인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이사랴 성문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라의 지옥 문이 무너질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제가 지적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련의 반전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죽은 신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실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놀라운 모순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모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여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활기찬 어조로 "초막을 몇 개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제안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때가 초막절 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막절은 메시아를 예고하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들이 변모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도 헤르몬산이었을 겁니다. 그곳의 새하얀 빛과 찬란한 풍경을 보면, 메시아를 예고하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이 "미안하다.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고난을 받으시겠지만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갈릴리에 대한 소개는 끝났습니다. 갈릴리에는 할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지리학 개론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한 일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갈릴리였습니다.